

## 호주의 목양산업(1)

1788년, 영국의 죄수들을 실은 배가 케이프타운에 정박하고 있을 때 호주의 필립 총독은 남아프리카 양을 구입하여 호주로 간다. 이때 백인들이 바라던 것은 양모보다도 식용의 고기였다. 이것이 호주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양의 기록이다.

1797년 영국의 선박 릴라이언스(Reliance)호의 워터하우스(Henry Waterhouse) 함장과 서플라이(Supply)호의 켄트(William Kent) 함장이 케이프타운에서 35두의 고든 메리노(Gordon merino)를 구입하여 시드니로 들어왔다. 이 35마리 중에서 항해 중에 22마리가 죽고 시드니에 도착하였을 때 살아남은 양은 13마리에 불과하였다.

이중에서 숫양 3마리, 암양 5마리를 구입한 사람이 당시 뉴사우스웨일스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 경리장교 존 맥아더(John Mcarthur)대위였다. 나머지가 윌리엄 콕스(William Cox), 토머스 로울렛(Thomas Rowlet) 그리고 사무엘 마스덴(Samuel Marsden)에게 팔았는데, 주로 다른 양과의 교배에 사용하였다. 이것이 1797년의 일이고, 이때부터 호주에서 메리노 양의 목양이 시작되었다. 지금으로부터 217년 전의 일이었다.

존 맥아더가 남아프리카에서 온 고든 메리노 양을 구입하기 이전에 호주에는 이미 영국이나 인도에서 들여온 양들이 있었다. 제임스 쿡(James Cook) 선장이 시드니 항에 상륙한 4개월 후인 1788년 5월, 식용으로 시드니에 데리고 온 양들은 29마리의 마톤 양(육식용)이었으며, 1792년에는 동인도 회사가 무역 독점권을 갖고 있던 시절에 댐프턴(W. R. Bampton) 선장이 인도로부터 불법적으로 인도양을 밀수한 사건이 있었는데, 밀수한 것이란 것을 알면서도 이 인도 양을 구입한 사람 중에 남아프리카의 메리노 양을 구입하였던 존 맥아더가 끼어 있었다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 마톤 양은 양모도 굵고, 헤어가 섞여 있었으며, 양모의 품질도 조악한 편이어서 양모의 가치로 보아서는 별로 인기가 없었다.

결국 남아프리카에서 온 메리노 양이야말로 앞으로 번식시켜야 할 양종이라고 본 것이다.

이 때 존 맥아더와 그의 처 엘리자베스는 약 1천 마리의 마톤 양을 갖고 있었는데, 이 남아프리카에서 온 메리노 양을 바탕으로 한 세계 최고급 의류용 양모를 만들기로 작정하고, 메리노 양의 번식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이것이 오늘날 호주의 메리노의 아버지로 칭송 받는 계기가 되었다.

1801년 10월 15일 맥아더는 양모 플리스를 큰 상자에 가득 넣고, 아들과 함께 런던행 배에 올랐다. 이때 영국은 나폴레옹 전쟁의 여파로 스페인으로부터 일체의 양모수입이 금지되고 있던 터라 맥아더가 갖고 간 양모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는데, 맥아더는 호주의 사우스웨일스 지방이 메리노 양 키우기에 가장 적합한 땅임을 강조한 결과 왕실로부터 약 1만 에이커에 이르는 토지 소유권까지 보상을 받아 호주로 돌아온다. 그리하여 시드니 남방 50 km지점에 있는 목양지 5천 에이커를 우선 확보하고, '캠덴 파크(Camden Park)'란 이름의 목장을 설립한다. 이 목장이 그 후 호주 메리노 양모 산업의 출발지가 된다.

이와 같이 존 맥아더라는 사람이 호주 목양의 개척자로 특기할 만하지만 이 무렵 같은 뉴사우스웨일스 지방에서 색스니 메리노(Saxony merino) 사육에 노력하던 사람이 알렉산더 라일리(Alexander Riley)였다. 1926년의 이야기다.

맥아더와 함께 몇 마리의 고든 메리노를 입수하였던 선교사 사무엘 고스덴도 맥아더처럼 착실하게 메리노 번식에 노력한 사람이다. 이 사람의 양종도 현재의 호주 메리노의 혈통을 이어가고 있다.

영국의 조지 3세로부터 영국 내에서 왕실 소유의 스페인 메리노의 기증을 받은 사람이 토마스 헨티(Thomas Henty)다. 1796년 그는 영국 내에서 메리노 양의 사육에 성공한 몇 안되는 사람으로 1829년 호주로 이주를 결심한다.

그로부터 1년 뒤에 호주 빅토리아 주에 색스니 메리노를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 파롱(Farlong) 일가다. 스코틀랜드 그라스코에서 전 가족이 호주로 이주한 남편 존과 그 부인

엘리자베스는 타스마니아에 토지를 장만하고, 1829년 자리를 잡는데, 1839년 빅토리아 주로 이주하면서 타스마니아의 목장을 데이비드 테일러(David Taylor)에게 매각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섬유인 원톤 양모(Winton wool)의 기지가 된다.♣ (공석봉)



<메리노의 아버지 John McArthur>